

## 중국 대외경제 정책 회고와 전망

### 2015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대외경제 정책 회고와 전망
2. 일 시 : 2015. 2. 12(목) 16:00~18:00
3. 발표자 : 상무부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승즈용(宋志勇) 부소장

### 1. 2014년 중국 대외경제 회고

#### 가. 대외무역

- 중국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계속하여 둔화
  - 2014년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4조 3,000억 달러 기록하였으며, 그 중 수출액이 2조 3,400억 달러, 수입액이 1조 9,600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1%와 0.4% 증가함.
    - 무역흑자는 3,7246억 달러로 전년대비 47.3% 증가함.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저원가 수출경쟁우위의 약화로 둔화세
  - 2014년 미국경제는 회복 양상을 보였으며, EU경제는 성장세가 미약하지만 쇠퇴에서 성장으로 회복되었음.

- 반면 2014년 일본경제는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기(景氣)가 부진했으며, 신흥경제국들은 미국 달러 절상 등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화되었음.
- 최근 중국 경제는 노동력, 용자 등 경영원가의 상승요인에 의해 전통 제조산업의 경쟁우위가 약화되면서, 저원가(低成本) 수출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 수출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쟁우위 약화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 해관통계에 따르면 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은 사실상 조립·가공만 의미하는 제품이 대다수임.
- 또한 2014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기조효과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 유지가 어려웠음.
  - 2009년을 제외하고 중국은 2002-11년까지 대외무역 총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음.
  - 그러나 2012년부터 대외무역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향후 중국 수출입총액의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나. 투자

### □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외국인투자 대상국

- 2014년 대중국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실제 외자이용액은 1,195.6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함(은행, 증권, 보험 등 데이터 불포함).
- 23년 동안 계속해서 개도국에서 1위 차지하였으며, 외국인기업의 대중 투자규모는 미국, EU,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경제체를 초과함.

###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

- 2014년 중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는 증가하여 전체 투자액의 55.4%를 차지했음.
- 2014년 중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12.3% 하락한 399.4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업종의 실제 외자이용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662.4억 달러에 달함.

### □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다소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증가

- 2014년 투자규모 상위 10위 국가와 지역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125.9억 달러로 실제 외자이용 총액의 94.2%를 차지함.

- 상위 10위권을 차지한 국가와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미국, EU, 아세안 등의 대중국 투자액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전년대비 29.8% 증가하여 상기 국가와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 중국은 중요한 자본수출국으로 부상

- 2014년 중국의 대외투자가 최초로 외자유치를 초과하면서, 대외투자액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1,160억 달러로 집계됨.
- 제3국 용자 재투자를 합산할 경우, 중국의 실제 대외투자 규모는 약 1,400억 달러로 중국의 실제 대외투자는 최초로 외자유출 규모를 초과하여 자본 순수출국으로 부상함.
  - 통계 집계 방법의 한계(그림자 금융 등)로 인해 실제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1,4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투자에 있어 브랜드, 기술력의 영향력도 크지만, 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 중국의 자본수출국 전환은 질적 도약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현재 대외투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과거의 심사제도와 큰 차이가 없음.

### 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지역간 균형발전, 주변국과의 협력 추진 필요, 수입 에너지의 안전한 수송로 확보,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책의 대응 필요에 의해 제시

- 중국의 연해 동부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향후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중서부지역은 ‘중서부지역 개발 가속화 촉진’, ‘서부 대개발’ 등 많은 개발 전략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중서부지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중서부지역과 인접된 국가와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임.
- 아시아는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부상하였지만, 지역통합 수준이 낮고 지역간 발전 정도가 상이하어, 역내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이 필요함.

- 특히 교통인프라시설 등이 낙후하고 발전수준이 상이하여 중국이 자국의 우위를 발휘할 경우 주변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주로 말라카해협을 통한 해상운송을 통해 해외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어 안전한 수송로 확보도 중요함.
- 최근 중국경제의 급속 성장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중국 역내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TPP와 '신 실크로드전략' 등 지역협력책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중국 '일대일로' 전략 제시 배경 중의 하나임.

□ 일대일로 전략은 연선(沿線)국가간 협력 및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인정여부가 주요 관건

-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일대일로' 연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국가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함.
- 또한 중앙아시아 등을 비롯한 일대일로 관련 지역과 국가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주요대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대국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 그 외 연선(沿線)국제조직<sup>1)</sup>과 국제금융기구<sup>2)</sup>의 인정여부도 향후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지난 1년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현저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입주기업 수는 설립시 25개에서 1년후 1만 2,000개로 확대되어 무려 480배 증가하였음.
  - 신설기업의 등록자금 총액은 3,4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1,00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금을 확보한 기업 수는 5,200개에 달함.
  - 신설기업의 업종분포를 보면, 주로 도매와 소매업, 리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집중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후 축적한 투자관리, 무역 간편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등에 대한 제도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 투자관리 분야에서 외자 광고기업 등록제, 세무 관련사항 온라인 비준등록, 세무등기번호 온라인 자동부여, 온라인 세무신고, 온라인 납세 신용관리 평가제도, 표준산업분류코드 실시간

1) SCO, 유라시아 경제동맹, 아세안, SAARC, 아랍연맹, GCC

2)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 개발은행 등

부여, 기업 표준등록 관리제도 혁신,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등록 취소, 외자기업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임.

- 무역 간편화 분야에서 글로벌 유지보수(維修)산업 대한 검사·검역 관리제도, 수화물 원산지 증명제도, 검사·검역시 무(無)서류 통관제도, 통관 시 제 3자의 검사결과 채택, 생물재료 및 제품의 출입국시 위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금융 분야에서 개인 및 기타 당좌예금의 인민폐 결산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에 대한 임의환전제도(intend to settlement: 意願結匯), 기초상품의 파생상품 연계무역 관련 외환 결제 서비스, 은행의 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변경등기 업무 처리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임.
  - 서비스업 개방 분야에서 금융리스 업무 겸업 및 주 업종 관련 팩토링<sup>3)</sup> 업무 허가, 신용조회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 주식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 금융리스 기업의 자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제도 미적용, 내·외자 기업의 게임 및 연예관련 설비 생산 및 판매 허가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사중사후(事中事後)감독관리 분야에서는 사회적 신용체계, 정보 공유 및 종합적인 법집행, 기업의 연도보고 공고 및 경영이상 경보 제도, 일반 대중들의 시장 감시 참여 활성화, 각 부서들의 전문적 관리제도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해관 감독관리 제도혁신분야에서 선물 보세결제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자유무역구 내·외 유지보수제도(境内外維修), 금융리스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등 전반적인 세관 감독 제도를 혁신할 것임.
  - 검사검역 제도혁신분야에서 수입화물 예비검사, 분산감독 제도, 동·식물 및 관련 상품의 검역시 네거티브 리스트<sup>4)</sup>형 관리제도 등의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면적과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시범구의 면적 확장 및 확대 건설이 필요함.
-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면적을 28.78km<sup>2</sup>에서 120.72km<sup>2</sup>로 확대 예정이며, 동북아시아 시장 위주로 텐진 자유무역시범구(119.9km<sup>2</sup>)<sup>5)</sup>, 홍콩과 마카오시장을 위주로 광둥 자유무역시범구(116.2km<sup>2</sup>), 대만시장을 위주로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를 건설(118.04km<sup>2</sup>)할 예정임.

3)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을 의상판매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업자가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대금회수, 매출채권관리, 부실채권보호, 금융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 중국에서는 주로 수출업자가 무역거래상 수취할 금액을 팩토링 업자에게 양도하며 팩토링 업자로부터 자금융통, 수입자신용평가, 판매장부관리, 신용위험담보, 지급채측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업무에 한정됨.

4)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는 품목의 목록

5) 해상운수, 금융리스를 중점분야로 하여 시범 건설

## 마. FTA 전략

□ 2014년 중국은 한-중 FTA, 중국-호주 FTA의 협상 타결하여 대외개방을 확대

- 한중 FTA, 중국-호주 FTA의 협상 타결은 중국이 선진국과 FTA를 협상할 능력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세계경제에 더욱 잘 융합될 수 있음을 설명함.

## 2. 2015년 중국 대외정책 전망

### 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일대일로 전략은 이미 중국의 장기 국가전략으로 부상

- 일대일로 전략은 연선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임.
- 또한 향후 중국과 역내 국가간 물적·인적교류, 자금이동 등 분야에서 서로 교류가 가능해져 다자 및 양자간 무역원활화가 촉진될 것임.
- 상무부는 2015년도 핵심업무로 연선지역의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무역과 투자원활화 수준 향상, 해외경제무역 협력단지 설립 지원, 많은 연선국가와 FTA 구축 등을 제시했음.

### 나. 외국인투자 정책(外商投資政策)

□ 외국인투자법 수정

- 2015년 1월 19일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投資法)’을 발표하고, 2월 17일까지 외국인투자 기업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임.
-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 경영기업법’(외자 3법으로 약칭)은 외자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
  - 2014년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세계 2위, 개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과거 중국경제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자금, 기술, 관리경험 등을 제공받았으며, 현재까지 외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외자 3법은 전면 개혁심화와 개방확대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 외자 3법을 통해 수립된 사건별 심사허가 제도 관리모델은 개방형 경제구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시장 활성화와 정부기능 전환에 불리함.
  - 외자 3법 중 기업조직 형식, 경영활동 등 관련 규정과 ‘회사법’ 등 법률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함.
  - 외국투자 관련법에 외자합병, 국가안전 심사 등 중요한 제도의 추가가 필요함.

## 다.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 □ 자유무역시범구의 확장

- 2014년 설립허가를 받은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가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임.
  - 2014년 12월 리커창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광둥(廣東), 텐진(天津), 푸젠(福建)을 새로운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더불어 새롭게 곧 설립될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으로 중국의 대외개방이 더 확대되고 대외투자가 활발해져 대외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에는 우한, 충칭, 청두, 실크로드 경제벨트 도시의 자유무역구 설립 허가가 예상됨.
  - 중앙정부는 더 많은 지역의 대외개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유무역구의 설립을 허가할 가능성도 있음.
- 2015년에는 4개 자유무역시범구(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에서 금융개혁, 무역 감독관리 모델, 정부기능의 전환 등 분야에 대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 적용이 가능함.

## 라. FTA 전략

- 2015년 중국은 중국-아세안 FTA 협상, RCEP 협상을 완성하기에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TPP 가입을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미국-EU 간 TTIP가 협상 중에 있는데, 향후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TPP 가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질의·응답>

### 질문 1.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펀드 규모로는 많은 국가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계적 규모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20년에 걸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NDRC에서 동 로드맵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정책은 언제쯤 출시될 것인가?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경제의 생산과잉 해결책과 관련된다고 생각됨. 그리고 현재 중국경제의 자본흐름이 외자유치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략적 시기라고 생각됨.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국가를 지원하였던 마셜 플랜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셜 플랜과 일대일로 전략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예를 들면 당시 미국이 지원하였던 대상국은 선진국이고 소득이 높은 국가였는데 지금 일대일로 관련 국가는 소득수준이 상당히 다양하고 비교적 낮으며, 베네수엘라 같은 빛을 갚기 어려운 국가도 있음.

### 답변 1.

사실 일대일로 중장기 로드맵은 2013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프로젝트가 복잡하고 많으며, 20여개 지방도시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정부공작보고에 포함시켜 계획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출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양회 끝나고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이 직면한 도전은 과거와 다르며 외부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음. 기존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음. 고용창출을 위해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업을 권장하고 있음. 미국의 마셜 플랜과 비교할 때 사실 현재 중국이 처한 환경은 그때 당시 미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미국이 마셜 플랜 실시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를 지원한 것임.

하지만 중국은 항상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주장하여 왔으며,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주변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물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의 과잉설비를 주변국가로 이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가 설비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예전처럼 낙후설비를 이전시키는 것은 아님. 낙후설비를 이전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신용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

아울러 마셜 플랜 실시 당시 대상국인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상국은 인프라 등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음. 비록 그때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국민의 교육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았으며, 기술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후 빠른 성장을 가



저울 수 있었음.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관련 대상국은 대부분이 경제발달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인프라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인프라시설 건설부터 착수해야 함. 또한 그때 당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마셜 플랜을 인정하고 적극 받아들였지만, 일대일로 관련 국가는 국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이러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주변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은 ‘신 실크로드 전략’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음. 따라서 마셜 플랜과 비교 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추진함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처한 환경과 직면한 대상국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함.

## 질문 2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함.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22개 성(省)과 해외 60여개 국가와 연관되어 있음. 특히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겠지만 후반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자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국내 민간자본과 외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나가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상황에서 보면 외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함. 아울러 민간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현재 민간자본과 외자자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답변 2

중국이 개혁·개방후 30여년이 되었지만, 금융개방은 많이 부족한 실정임.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중국은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함.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역시 자본개방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사실 중국의 금융업은 개방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함.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곧 시작될 텐진, 광둥, 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금융업의 적절한 개방을 검토하고 있음. 사실 개방도가 낮을수록 기업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예컨대 최초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음. 즉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성도 더 크다고 생각함.

한국의 금융업은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한중 양국은 펀드, 은행 등 금융업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제조기업 역시 협력을 강화하여 제3국에 공동 투자하여 각자의 우

위를 발휘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질문 3

외국투자법을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법률 수정은 외자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특히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 20여년간 외국인투자 경험을 보면,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법보다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인투자법이 수정될 경우 지도목록과 어떠한 관계를 이룰 것인가?

### 답변 3

외국인투자법 수정은 외자기업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과거 외자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심사가 모두 취소될 것임. 즉 향후 기업은 신용에 대해 기업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임. 아울러 향후 외자 M&A, 외자심사 등 관련 사항은 법률을 통해 투명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도목록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점차 네거티브 리스트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미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음.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게 되면 법적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개방되기 때문에 창업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포착에도 유리하게 될 것임. 전반적으로 지도목록은 점차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게 될 것인데 이에 일정한 과정이 필요함. 지도목록 범위와 관련해서 제조업이 빠르게 축소될 것이고 서비스업은 약간 더디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중-아세안 FTA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정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지도자가 결정할 경우 FTA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빠르게 추진될 경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비즈니스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세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음. 향후 지도목록과 관련해서도 아마 지도자의 식견에 따른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 크게 개방할 수도 있음.

### 질문 4

외국투자법 수정은 이번 3월에 개최될 양회에 제안될 수 있는가?

### 답변 4

외국투자법 수정안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음.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내부 조율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제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질문 5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정부가 주도적이어야 하고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고 프로젝트가 이행된 후 리스크를 통제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 한중 양국기업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공감함. 하지만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장기에 걸쳐 대금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시켜서 금융 분야에 양국 기업이 협력하여 리스크를 감소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안이 있음. 즉 ‘해외사업대금’이라는 재원을 만들어 해외 진출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주는 것임. 일본의 예를 들면 80년대 당시 일본의 많은 기업이 동남아에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해외사업대금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커버하였고 대금의 회수에 대해 책임져주었음. 중국의 수출보험회사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답변 5

정부에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특히 지금과 관련된 사항은 더욱 어려운 일임. 기존에 존재하는 실크로드 펀드의 경우도 향후 운영함에 있어 많은 문제 발생이 예상됨. 아울러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협상 등 과정만 2~3년이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안은 좋지만 실현하기 어려움.